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볼트파츠 포머

효동기계공업의 볼트파츠 포머는 5단에서 8단까지 제작이 가능하며, 특히 트랜스퍼의 경우 오픈, 턴, 유니버설 척 등을 조합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군을 성형하는 데 최적화된 기종이다.

CEO STORY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

끊임없는 기술 개발, 기업의 미래를 이끈다

CEO ACADEMY
"온난화 끝, 지구 들끓는 시대"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P.02

ESG FOCUS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업의 돌파구는? '재생 소재'에서 그 답을 찾다
P.22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P.40

2023. October VOL.223

IBK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23. October. Vol_223

CEO ACADEMY

02~15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02_ **FIGURE**
"온난화 끝, 지구 들끓는 시대"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04_ **ISSUE**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구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08_ **CASE**
강철도 휘게 만드는 무더위
기후변화가 가져올 산업별 변화 모습

12_ **PLAN**
탄소중립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01_ **INTRO**

16_ **CEO STORY**
김동섭 효동기계공업㈜대표
끊임없는 기술 개발,
기업의 미래를 이끈다

22_ **ESG FOCUS**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업의 돌파구는?
'재생 소재'에서 그 답을 찾다

26_ **GLOBAL MARKET**
대내외 악재 속 디리스킹 속도 내는
중국 진출 기업들

30_ **MARKET FINDER**
기술 경쟁력은 높이고 R&D 리스크는 줄이고
글로벌 기술 도입 지원사업(X&D)

32_ **CEO'S GURU**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34_ **IBK & START-UPS**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
㈜**블루웨일컴퍼니** 오상혁 대표
원더무브㈜김태원 대표
㈜**뷰전** 윤희영 대표

38_ **INDUSTRY REPORT**
HBM, D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다

40_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42_ **POLICAST**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44_ **COMPANY & LAW_ TAX**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평가 방법

46_ **COMPANY & LAW_ LABOR**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48_ **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50_ **CEO FAVORITES**
CEO의 즐겨찾기

52_ **IBK SUPPORT**
IBK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53_ **IBK EVENT**
독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발행일 2023년 10월 4일(통권 제223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박태상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
문의 02-360-4833
인쇄소 ㈜타라TPS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지난호 보기

CEO ACADEMY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끓어오르는 지구는 단순히 조금 더 더운 여름을 지내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세계적으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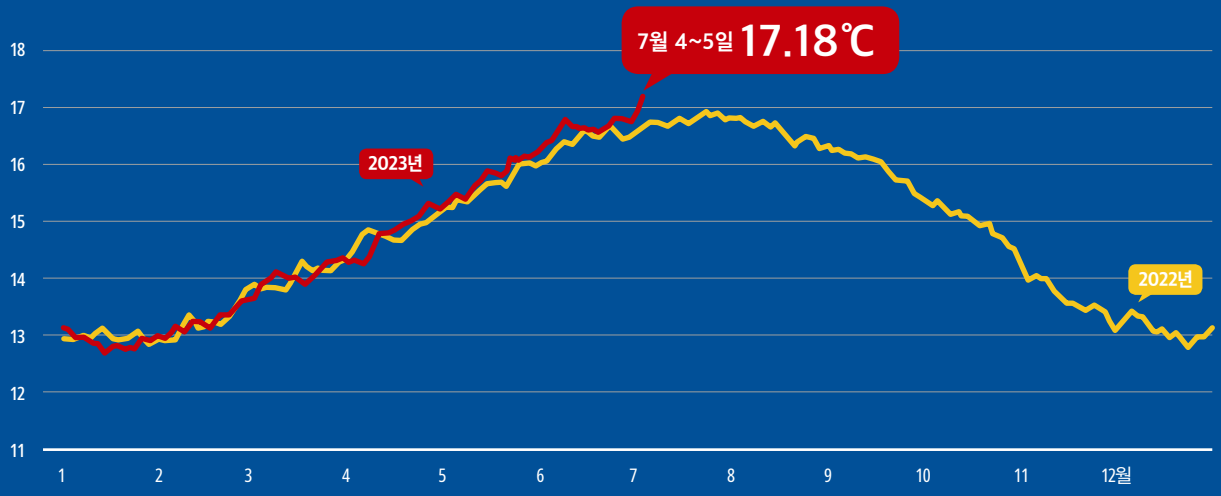
"온난화 끝, 지구 들끓는 시대"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났다.
끓어오르는 '지구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지도를 바꾸고 있는 '지구열대화'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 평균 기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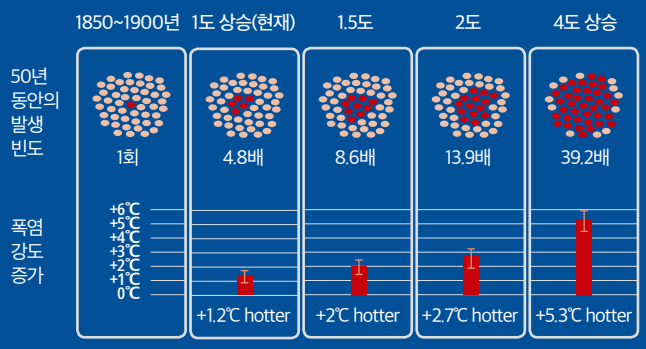
지난 7월, 전 세계 기온이 역대급 고온을 나타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 산하 국립환경예측센터NCEP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영상 17.18도로 측정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5일 역시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로 전날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주 일평균 지구 기온 단위 ℃ 자료 NOAA 산하 NCEP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발생 빈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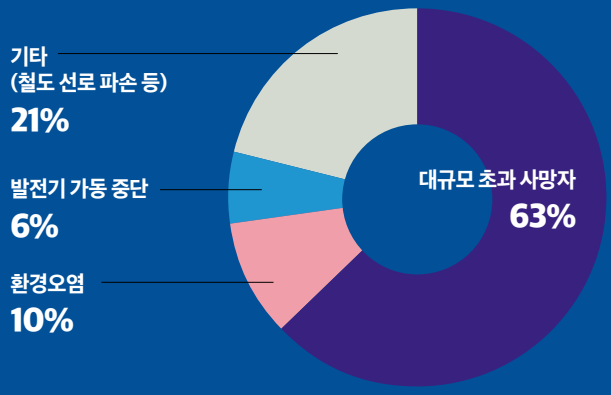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평균 기온 상승이 2도 또는 그 이상 진행될 경우 지구온난화 영향이 더 광범위해지고,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 보고서는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극단적 폭염의 발생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2도 상승했을 때는 13.9배, 4도 상승했을 때는 39.2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1850~1900년에는 50번에 1번 발생하는 극심한 폭염 사례 기준
자료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

폭염으로 인해 더 위험해질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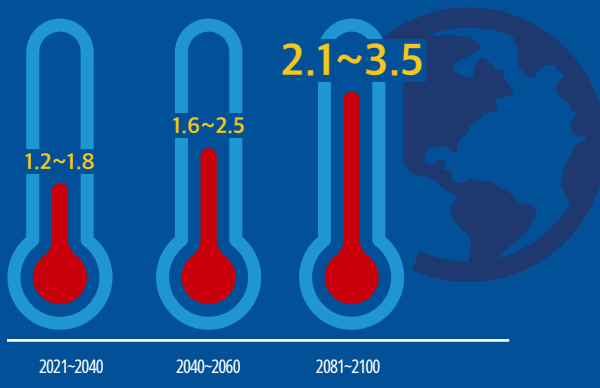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아주 높아질 재난' 상위 5개는 홍수, 태풍, 감염병, 폭염, 가뭄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폭염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폭염은 사망자 발생을 증가시키고, 전력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발전시설 가동 중단 등의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안전이슈 17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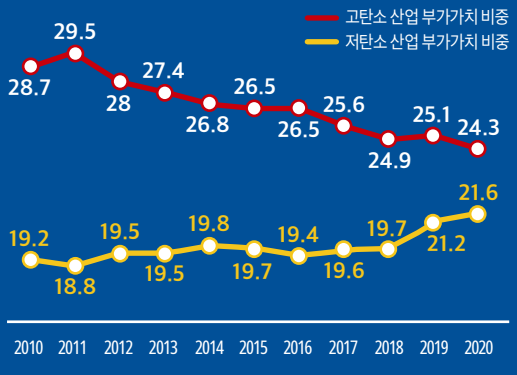
IPCC는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040년까지 지구 지표면 온도는 평균 1.5도, 2100년에는 평균 3.2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중간 배출량 기준 **단위** ℃ **자료** IPCC

국내 고탄소 및 저탄소 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 추이

우리나라 광업과 제조업의 고탄소 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고, 저탄소 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점차 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광업 및 제조업 기준, 경제 활동별 총부가가치 대비 탄소배출량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탄소중립 정책의 국내 은행 영향 및 대응 방안', 2022년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구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름철 복날의 개들은Dog Days of Summer 그저 짖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다.

2023년 북반구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다. 6~8월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섭씨 영상 16.77도로 1991~2020년 동월 평균보다 0.66도 더 높았다. 8월 기준으로는 1850~1900년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약 1.5도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8월 한 달이기는 하지만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세운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넘어선 수치다.

역대급 무더운 여름

지역별로 살펴보면, 7월 중순에는 미국 데스밸리Death Valley와 중국 북서부 지역의 기온이 50도를 넘었으며 이란에서는 8월 초 체감 온도가 60도를 상회했다. 또한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에 따르면 미국 50개 대도시의 폭염 시즌은 1960년대에 비해 49일이나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세지고, 발생 빈도도 잦아지며,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중위도 지역에서의 폭염이 심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 또 다른 공급 충격에 직면

이러한 글로벌 폭염 현상은 단순히 이례적인 날씨 현상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① 물류 차질 ② 전력 부족 ③ 생산 차질 ④ 식량 부족 등의 리스크를 확대시킴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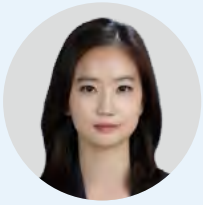
① 물류 차질

철도, 항공 등 여러 물류 기반시설은 정상 온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데 정상 범주를 벗어난 고온이 지속되면서 기반시설이 손상되고 운송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폭염으로 철로가 한계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서 탈선 위험이 높아지고, 고온으로 인해 늘어진 고압 전력선과의 마찰로 화재가 발생해 철도 운행이 중단된 적도 있다. 비행기 활주로가 부풀어 오르거나 지표면 온도가 상승해 공기 밀도가 감소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2년 연속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 수위가 평균 이하로 낮아져 바지선의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22년 독일의 수로를 통해 운송된 물동량은 1.82억 톤t으로 2021년 대비 6.4% 감소했는데, 이는 통일 이후 최저치다. 독일 연방 수로 및

기록적 폭염에 휩싸인 데스밸리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올여름 영상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기록하는 한편 역사상 최대 폭우가 쏟아지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났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에서 에너지, 농산물 등 원자재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물류 운송의 핵심인 독일 라인강 유럽 내륙 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라인강이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재 공급 선박의 통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해운청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열에 따른 제품 변형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방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물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전력 부족

폭염에 따른 냉방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온 상승에 따른 냉각수 부족, 저수지 수위 하락, 연료 운송 차질 등으로 전력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냉각에 사용하는 강물 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할 경우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일례로 2018년 스위스에서는 강의 수온 상승으로 출력이 10% 감소했으며, 지난해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벌어졌다.

수력발전도 타격을 입는다. 폭염은 가뭄을 심화시켜 수위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눈의 융해 시기를 앞당겨 전력 생산에 지장을 준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가뭄에 따른 저수지 수위 하락으로 수력발전이 5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태양광 패널도 폭염이 지속되면 시스템이 과열되어 오히려 효율성이 최대 5~10%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3 생산 차질

극한 기온에서는 물류 마비 및 전력 부족과 함께 근로 효율 저하가 더해져 전반적인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현장 등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폭염 시 작업 효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폭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근무시간이 2%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8,0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상실과 2.4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독일 라인강의 저수위가 지속되어 물류 차질이 계속될 경우 산업생산 1% 감소, 경기 침체 기간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위에 따른 수력발전 감소로 산업 활동이 몇 달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걸프 해안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설비 고장, 정전 등으로 예상치 못한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원유 시추 및 석유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4 식량 부족

현대 사회의 식량 공급망은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만큼, 폭염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대규모 작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식량 가용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세계 주식인 밀, 쌀, 옥수수의 수확률이 각각 6%, 3.2%,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폭염은 가축의 폐사율을 증가시키고 번식력 저하 및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달걀, 우유 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식품 보관 및 운송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온에 따른 유통기한 단축, 대규모 식품 폐기 가능성 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냉방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냉방에 따른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염, 이제는 예방이 아닌 대응 태세 필요

산업화 이후 이어져 온 지구온난화의 결과인 '폭염'은 앞으로도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보고서에 의하면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될 경우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는 시점은 203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지고, 상승 폭도 최대 2도 이상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세계 인구의 37%가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폭염의 빈도도 더욱 증가해 204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면 12배 더 자주 발생할 전망이다. 더 길고 빈번해지는 폭염은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키고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시킬 것이다.

미국 다트머스대는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구열대화가 계속될 경우 폭염을 비롯한 가뭄, 폭우, 홍수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폭염에 시달렸던 이번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시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주요국들의 대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형 선풍기로 열기 식히는 축사 폭염은 가축의 폐사율을 증가시키고 번식력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 등을 초래하며, 이는 달걀, 우유 등의 감소로 이어진다.

스페인 테네리페섬에 발생한 산불
지난 8월 15일 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섬에 산불이 발생했다.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약 8,000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고립되었다.

강철도 휘게 만드는 무더위

기후변화가 가져올 산업별 변화 모습

세계적으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극심한 고온은 공장 기계를 더 빨리 마모시키고 강철을 더욱 쉽게 휘어지게 만든다.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과 같은 산업은 물론 반도체와 관광 산업에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인류가 석탄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태우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지구 기온은 섭씨 1도 정도 상승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에 1850~1900년보다 지구 표면 온도가 1.1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내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2도에 이르면 노동 생산성 25% 하락

전 세계가 폭염과 싸우고 있다. 이란은 8월 1일 이틀간 공휴일을 선포했다. 한낮 기온이 섭씨 영상 5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란뿐만이 아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싼바오 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도 최근 기온이 각각 52도와 53도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이탈리아 로마는 지난 7월 최고 기온이 41.8도로 관측되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해마다 뜨거워지는 여름에 폭염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불볕더위는 인간의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술지 란셋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더위 노출로 인해 미국 농업·건설·제조업·서비스업 부문에서 25억 시간 이상의 노동력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표된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32도에 도달하면 생산성이 25% 떨어지고 38도를 넘으면 70%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주일에 32도가 넘는 날이 6일 이상이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8% 하락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 폭염으로 3,0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에 닥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폭염으로 인한 만성적 신체 위험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2100년까지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기후위기로 '쌀'이 사라지고 있다

폭염과 폭우,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경영 방식을 바꾸는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다. 잦은 홍수와 가뭄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기후위기가 곧 식량위기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7월 설탕 가격은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쌀값은 전월 대비 2.5%, 전년 대비 17.8%나 올랐다.

기후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한국인의 주식인 '쌀'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십억 명의 식량과 생계를 책임지는 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모내기 일정을 바꾸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모종에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도 한다. 세계 4위의 쌀 수출국 파키스탄은 홍수로 인해 쌀을 포함한 여러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곡물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하는 아프가니스탄도 피해를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더욱 상호 연결되고 무역 제한으로 인해 식량 체계가 복잡해

기후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쌀'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수십억 명의 식량과 생계를 책임지는 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객원기자
경제 주간지 한경비즈니스에서 국내외 경제, 산업 동향, 비즈니스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수백만 명의 식량을 공급하는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 역시 지난 20년 동안 극심한 강우로 인해 쌀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인도는 자국민을 먹여 살릴 식량 부족을 우려해 쌀 수출을 제한했다. 캘리포니아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많은 농부들이 밭을 휴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스마트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활용이 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도, 습도 등의 재배 환경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에도 고온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태풍과 같은 극한 기상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콘크리트도 녹이는 날씨에 건설업도 비상

'건설'도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일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극한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콘크리트 양생에는 온도가 매우 민감한 요소다. 양생은 시멘트가 물을 만나 단단해지는 과정을 일컫는데, 이 과정이 빨라도 느려도 문제가 된다. 온도가 높으면 초기 급격한 수화 반응으로 냉각 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목표로 하는 만큼 단단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로 인해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지연 같은 갈등이 많아지는 등 위기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에 기회가 되는 요인도 많다. 폭염, 홍수,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에 대규모 인프라를 확대하는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은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를 겪은 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맨해튼 이스트 리버 파크에 홍수 방지 장벽을 세우고 있다. 땅의 고도를 높이는 공사로 전체 17억8,000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폭염에 직격탄 맞는 건설 업계
폭염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예방할 휴게 장소를 마련하는 등 이와 관련한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여행지도 달라진다

폭염은 '관광 산업'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올해 극심한 무더위에 큰 산불까지 이어지며 관광 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따뜻한 지중해 지역으로 향하던 이들이 발길을 돌린 곳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다. 무더위를 피해 더욱 선선한 지역을 선택한 영향이다.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올여름 지중해 지역 방문을 계획한 이들의 비율은 10% 줄어든 반면,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의 여름휴가 예약은 3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찾은 관광객 폭염은 '관광 산업'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올해 극심한 무더위에 큰 산불까지 이어지며 관광 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물 부족'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폭염은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는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가 꼽은 대표적인 물 사용 민감 업종이다. 반도체 공정에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만 TSMC는 2021년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해지며 반도체 생산량을 맞추지 못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가뭄에 시달리며 '물 사용 자제' 권고까지 내려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물 부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제조업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정에 물이 상당수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물과 관련한 담수화 사업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업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물이 풍부했던 지중해 국가들에서도 이제 해수 담수화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스페인, 이스라엘, 알제리 등이 수자원 인프라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 가동을 시작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요브레가트 담수화 플랜트는 바르셀로나 식수의 5% 미만을 공급했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초당 1,900리터 이상의 담수를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 지역에서는 아드리아해 건너 알바니아에서 강물을 끌어 쓰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4,000억 원)를 들여 100km에 이르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폐수 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하고 이탈리아 최초의 주요 식수 담수화 플랜트도 건설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전례 없는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는 매년 반복되고 홍수와 가뭄, 폭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지구촌 뉴스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새로운 이슈도, 책임소재 논란이나 먼 미래의 이슈도 아닌, 눈앞에 닥친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이슈로 떠올랐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 각국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을 공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국가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축 의무 및 각

현대차 전시회 '해비타트 원'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 '해비타트 원Habitat One'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도시 비전을 제안했다.

종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및 제품 소비가 증가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시장, 에너지 고효율 제품 시장 등이 급성장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에너지 전환 투자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저장, 수송, 난방의 전기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수소 및 지속 가능한 소재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가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 및 기타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부문은 2022년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4,950억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하며 최대 투자처를 차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청정에너지원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에는 약 2,0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는 단지 기업 구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 방식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신사업의 변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다. 이는 제조 기업이든 서비스 기업이든 기후변화를 기회 삼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접근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후변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애플, 월마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와 같은 국내외 대기업은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경영 전략을 새로 마련하는 등 사업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은 어떤가? 2021년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중기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중소기업이 80.6%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준비되어 있거나 대응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15.1%에 불과하

장현숙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장

연구 분야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영이며, 현재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 장현숙 외(2023년),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친환경 수소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트레이드포커스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현황

구분	2030 탄소 배출 감축 목표	탄소중립목표연도
영국	1990년 대비 68% 감축	2050
독일	1990년 대비 55% 감축	2045
유럽연합EU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
미국	2005년 대비 50~52% 감축	2050
캐나다	2005년 대비 50~52% 감축	2050
중국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
일본	2013년 대비 46% 감축	2050
한국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

다.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투자와 실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고, 대응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 답했는데,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당장 판매나 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기에 기후변화 대응은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해진 상황에 굴복하거나 안주해 바뀌지 않은 기업이 결국 살아남지 못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코닥이 그랬고, 노키아가 그러했으며, 싸이월드도 결국 쇠퇴의 길을 걸었다.

세계는 지금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대세에 동승하지 않고는 존립의 위험까지 겪을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직접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나 시민단체 혹은 바이어나 공급망 거래 업체가 기업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의 탄소 배출 및 탄소 경영 정보의 공개와 함께 제품 생산라인의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공급 업체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강하게 모멘텀화가 되고 있다. 그 유형은 온실가스의 직접 배출량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사용 연료의 종류와 양,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이행 계획, 특정 공정상의 배출가스 종류까지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탄소 배출 정보의 경우 인벤토리Inventory 구축에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이 많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린피스의 화석연료 퇴출 촉구 퍼포먼스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차원의 직접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나 시민단체 혹은 공급망 거래 업체가 기업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온실가스 인벤토리부터 구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업의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목록화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저감의 기초가 된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도움

이 된다. 또한 내부 직원에 대해 전사적 교육을 통한 자사의 배출 저감 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제품 전 과정 측면에서 단순히 탄소 이슈를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줄일 수 있다.

둘째,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 ISO 14001 등 환경관리시스템Environment Management System·EMS을 구축해 왔으므로, 기존 EMS에 온실가스 항목을 추가해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한 인벤토리에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기존 시스템에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다.

셋째, 탄소·에너지경영시스템Carbon &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구축이다. 기존 EMS의 장점을 활용해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전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행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 개선과 동시에 탄소의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 배출 부문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해외 규제 및 바이어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와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수출 기업의 경우 탄소발자국보고서CFR나 탄소전략보고서CSR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자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자사 제품의 탄소발자국, 자사의 탄소 배출 저감 전략 및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SK 전시부스 국내외 대기업은 이미 기후변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전략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탄소 관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나타내기에는 기존 지속가능보고서SR로는 한계가 있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CFR이나 CSR을 활용해 탄소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 대처할 뿐 아니라, 남들보다 과실을 미리 맛보는 혜택을 누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해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성장의 저력 한가운데 바로 우리 기업들이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장하리라 기대해본다.

Writer 김광균 Photo 박충렬

효동기계공업㈜

끊임없는 기술 개발, 기업의 미래를 이끈다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엔 희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룬 기술 개발이 기업을 100년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만들어내는 냉간 단조기 생산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효동기계공업의 김동섭 대표. 자신만의 확고한 경영철학으로 일군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다.

효동기계공업은 1983년 설립 이래 냉간 단조 설비 제작의 외길을 걸어 온 국내 대표 기업이다. 40년간 산업용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냉간 단조 설비 연구·개발R&D과 생산에 주력하면서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효동기계공업의 주력 생산품은 포머Former로 불리는 냉간 단조기로, 금속 재료에 강한 힘을 가해 제품을 가공하는 프레스의 일종이다. 다만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는 수직 방식이 아니라 수평으로 힘을 가해 원하는 형상을 얻어내는 기계다. 포머는 열간 방식과 냉간 방식으로 나뉘는데, 효동기계공업은 소재에 열을 가하지 않고 제품을 가공하는 냉간 방식의 포머를 주로 취급한다. 냉간 방식은 열간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공정 자동화에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로 쓰이는 볼트와 너트 대부분이 냉간 포머로 생산된다.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가 냉간 단조 설비 시장에서 가능성을 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볼트와 너트, 파스너는 산업의 요소요소에 없어서는 안 될 부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볼트와 너트가 없으면 조립을 할 수 없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볼트, 너트는 대부분 우리 회사 제품으로 찍어낸 겁니다. 각종 산업의 기초 혹은 핵심 부품들이 효동기계공업의 기계를 통해 제작되고 있고 그러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

기술의 고도화와 품질 향상 효동기계공업은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품질 향상을 위한 내부 교육 강화와 공정 보완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우수한 품질을 향한 남다른 고집

1983년 효동기계제작소로 창업해 롤링기, 포인팅기, 헤딩기계 등 다양한 단조 설비를 제작해 온 효동기계공업은 1990년대 들어 국내 최초로 고정도 다단식 포머를 개발하고, 일본 최대 포머 제조 기업인 사카무라와 기술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국내 최대 포머 제조 기업으로 거듭났다. 효동기계공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포머 라인업을 늘려 나갔고, 국내 최초 8단 포머 개발, 전자동 툴 교환 시스템 개발 등 고정도 다기능 포머 개발 측면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김 대표는 태양금속에서 첫 단추를 끼웠다. 볼트를 생산하는 단조 기업이었다.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보전반에서 포머기를 제작하고 보수하는 기술을 익혔다. 노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솔직히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취직도 잘 안 되고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이런저런 일을 하던 중 그동안 배운 걸 기반으로 단조 설비 제작 일을 하게 되었죠."

기계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진 김 대표

는 초기 볼트·너트 제조 기계 제작에 최고급 부품만을 고집하면서 적자를 많이 봤다. 첫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몸에 밴 까닭이었다. 그곳에선 판매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제작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지만 판매용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김 대표로선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설비투자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부품들로 기계를 제작하다 보니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집 2채를 팔아도 안 될 정도로 부채가 급증하자 회사 운영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만 접자고 생각했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이 고생을 하고 왜 그만두느냐고, 적자가 나면 가격을 올리면 될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누가 살까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부채를 줄여보자는 생각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반발하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계속 거래가 이어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업체들은 좀 더 싸고 질이 좋지 않은 원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 기계는 2~3년도 못 가 쉽게 마모되고 망가져 못 쓰게 되기 마련인데, 우리 제품은 10년 넘게 써도 멀쩡하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기술력 확보, 성장의 변곡점

소형 기계 위주로 제품을 생산해 오던 효동기계공업이 한 단계 도약을 이룬 계기는 일본 기계 업체인 사카무라와의 기술 제휴다. 처음 김 대표가 기술 제휴를 제안했을 때 사카무라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거듭된 요청으로 사카무라 측의 방문 미팅이 성사되었고, 직접 공장을 둘러본 사카무라 회장이 효동기계공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기술 제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효동기계공업은 기술력을 축적해 가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다. 내수 시장을 석권하며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과정에서 IMF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김 대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카무라와 결별했다.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선 사카무라가 아닌 자사 제품으로 승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전통의 제조업 강국 독일이었다. 어떻게든 독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뒤셀도르프

효동기계공업의 온간 포머
온간 포머는
섭씨 200~850도의 온도로
재료를 가열해 우수한 성형성을 가지며,
냉간 단조에서 생산할 수 없었던
티타늄, 마그네슘, 인코넬,
알루미늄합금 등의 소재를
단조 성형할 수 있다.

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해 바이어들을 찾아 나서며 활로를 뚫었다. 독일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다음 타깃으로 삼은 국가는 일본이었다.

"당시 전략적으로 일본 대기업인 토요타 계열사들을 공략하려고 했어요. 전시회에서 업체 사람들이 제품 가격을 물어봤을 때 '당신들이 주고 싶은 대로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한 회사와 거래를 트면서 후속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죠. 그때부터 사카무라도 우리를 경쟁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효동기계공업의 기술력은 한층 고도화되고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제조 강국답게 제품 검수 과정도 매우 까다로워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다. 효동기계공업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공정을 보완하면서 지적사항을 줄여 나갔고,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더불어 경쟁사보다 반 발짝 더 빠른 납기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주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해외 시장과 기계 산업 분야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게 되자 수상 경력도 쌓여 갔다. 2021년 김 대표는 '2021 한국산업대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데 이어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독자 개발한 단조 성형기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받으면서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

효동기계
Technology for Machineries

효동기계공업의 주요 제품

- HBF Series 볼트 포머
- HBP Series 볼트파츠 포머
- HNF Series 너트 포머
- HNP Series 너트파츠 포머
- HR Series 롤링기
- HW Series 온간 포머
- HH Series 열간 포머
- HL Series 링크 포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

김 대표는 늘 현장에 머문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손님을 만나는 시간 외에는 항상 현장에 있다"는 그의 말처럼 늘 현장을 돌면서 생산라인과 제품을 면밀히 살피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다.

"주위에선 저더러 골프나 치며 편하게 살지 왜 그리 세상을 피곤하게 사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노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기술 개발에 매달리는 것에서 더 흥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어딜 가더라도 기계가 눈앞에 어른거릴 정도니까요."

효동기계공업도 다른 제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경기 침체의 여파를 피해 가진 못했다. 매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냉간 포머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와 포부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는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지만 향후 생산성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생산해 놓고 고객사에 바로바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기술 개발은 끊임없이 해야 할 영역이고요.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포머를 만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STRENGTH

효동기계공업의 4가지 성공 비결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

김동섭 대표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에 희망은 없다고 단언한다.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이 기업을 먹여 살린다는 믿음으로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철저한 고객 만족 경영

고객사가 의뢰한 제품에 대한 요청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만족시키는 것이 철칙이다. 또한 고객사에서 제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기도 한다.

고객 요구에 맞춘 설계·개발

고객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개발하고, 고객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툴과 시스템을 갖춘 솔루션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상의 품질을 향한 집착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바탕으로 최상의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고, 최적의 공정으로 품질을 확보하며 최고의 품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History

1983
효동기계제작소 설립

1991
경기도 군포공장 신축 이전

1993
사카무라사와 기술 협약 체결

1995
경기도 안산공장 확장 이전

1998
국내 최초 포머 HBP-570SS 개발

1999
HBP-570SS 독일 TRW 수출

2004
수출의 탑 및 대통령 표창 수상,
화성 제2공장 신설

2008
발안산업단지 신공장 확장 이전,
HBP-723 일본 수출

2014
발안산업단지 제2공장 완공

2017
발안산업단지 제3공장 완공

2020
해외법인 효동유럽 설립
(독일 뒤셀도르프),
올해의 기계인 선정

2021
금탑산업훈장 수훈,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창업	본사	주력 제품	인원	2022년 매출액	2023년 매출 목표
1983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냉간 단조기	185명	693억 원	650억 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업의 돌파구는?
'재생 소재'에서 그 답을 찾다

화장품 용기, 페인트, 타이어, 운동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온갖 제품에 재활용 소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ESG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기존에 사용된 소재를 재활용해
공급을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지난 8월 11일 국내 판매가 시작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와 폴드5에는 여러 부품에 재활용 소재가 사용되었다. 액정에는 유리 부스러기를 재활용한 소재가 평균 22% 포함되었고, 스피커 모듈 부품에는 폐어망과 생수통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이 20% 적용되었다. 제품 측면의 볼륨 조절 버튼과 가입자식별모듈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SIM 카드를 꽂는 트레이에는 알루미늄 찌꺼기를 재활용한 소재가 28% 포함되어 있다.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휴대전화 케이스와 내부 필름을 만들었고, 제품 포장 박스도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다.

삼성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온갖 제품에 재활용 소재가 자리 잡고 있다.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사용된 기존 소재를 재활용해 공급을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활용 소재 R&D 총력 기울이는 석화 업계

재활용 소재 관련 연구·개발R&D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계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존에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화장품 용기, 페인트,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접목하고 있다.

LG화학은 2019년 7월 플라스틱 소재인 고부가합성수지ABS를 재활용해 만든 흰색 색상의 사용 후 재활용 Post Consumer Reclycled·PCR AB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해냈다. ABS는 자동차 내장재와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외장재로 사용되는 소재다. LG화학은 연간 약 200만 톤t의 ABS를 생산하는데, 사용 후 버려진 가전제품을 파쇄해 ABS를 추출해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검은색, 회색 계열로만 추출되던 재활용 ABS가 흰색을 띠게 하는 데도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페인트에도 재활용 원료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LG화학은 지난 8월 초 삼화페인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페인트 원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삼화페인트는 이를 활용해 점착제, 접착제, 페인트 도료 등을 제작할 수 있다.

SK케미칼은 2021년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원료 코폴리에스터를 상업화하고, 지난해 화학적 재활용 페트 양산 체계를 구축해 주요 화장품 용기와 식음료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연간 7만 톤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 '슈에'를 인수했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1월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 루프LOOP'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폴리프로필렌PP과 ABS 등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페트병을 약 400만 개 수거해 7만 점의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었고, 관련 스타트업 8곳을 지원했다는 게 롯데케미칼 측 설명이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열분해유 기반의 납사를 활용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해내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8월에는 화장품 업체 한국콜마, 콜마 자회사인 화장품 용기 업체 연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생 소재를 사용한 화장품 용기 개발에 나서는 등 재활용 플라스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동차 차체·섬유 원단도 재활용 소재로

효성, 코오롱 등 섬유 업계 역시 재활용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갤럭시 Z플립5
지난 8월 11일 국내 판매가 시작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와 폴드5에는 여러 부품에 재활용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기우
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로 중소기업, 석유화학, 항공, 배터리 등을 취재하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리젠서울' 서울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서울'. 500ml 페트병 16개를 재활용해 리젠 섬유 가방 1개를 만들 수 있다.

'진심'이다. 효성의 섬유 자회사 효성티앤씨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Regen을 2008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500ml 페트병 16개를 재활용해 리젠 섬유 가방 1개를 만들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이탈리아 원단 제조 기업과 협업해 수영복용 재활용 원단 '피시테일'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폐어망을 재활용한 '리젠오션 나일론'과 산업 폐기물로 만든 재활용 스판덱스 '크레오라 리젠'을 원료로 사용한 원단이다. 8월에는 리젠 섬유로 만든 방진복을 미국 텍사스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제조·패션 부문 역시 재활용 소재와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 부문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한 PCR 페트 필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LG생활건강과 롯데알미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화학재생그린섬유개발' 사업 주관사로도 선정되었다.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과 폐섬유 재생을 통한 사업화도 진행 중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 부문의 재활용 의류 브랜드 래코드RE;CODE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의류 제품의 3년 차 재고나 에어백, 카시트 등 산업 소재를 재활용해 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오롱은 더 나아가 올해까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을 전체 신상품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효성과 코오롱은 타이어 소재인 타이어코드에도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도입하고 있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기능성 섬유 소재다. 타이어코드 공급량 세계 1·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는 효성과 코오롱은 수년 내에 타이어코드 생산 원료를 일반 플라스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코오롱은 2027년, 효성은 2030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만 생산하는 타이어코드를 양산하겠다는 게 목표다.

자동차에도 각종 재활용 소재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최신형 전기자동차 아이오닉6 역시 곳곳에 재활용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 내외장 도색에는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를 녹여 추출한 검은색 도료를 사용했다. 카페트는 폐어망을 재활용한 원사로 제작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가 판매 중인 차량에 사용된 소재의 85%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다.

자동차 차체 역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추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최근 자회사 혼다기술연구소 내에 머티리얼센터를 설립해, 금속이나 수지 등 각종 재활용 소재 연구를 통합했다. 이미 혼다 북미 공장은 재활용 알루미늄을 주력 차종인 시빅 차체에 적용했고, 구마모토현 공장도 대형 오토바이 등 4개 차종에 재활용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 2월 전기차 ID.3 등 여러 차종에 새로운 재활용 소재를 도입한다고 선언했고, 스텔란티스 역시 지난 6월 벨기에의 금속 재활용 업체와 폐차 재활용 합작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자동차를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모듈 생산 방식인 '기가캐스팅' 소재에 가솔린 차량에 쓰였던 알루미늄을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기술 선점 및 공급망 다변화까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재활용 소재를 확대하는 것은 ESG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당장 비용은 더 들지만 탄소중립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큰 흐름"이라며 "앞으로 재활용 시장이 확대되면 비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재활용 소재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산업 시장은 2023년 521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2028년 743억 달러(약 1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니켈, 리튬 등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원료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배터리에서 원료 금속을 추출하는 자회사 HY클린메탈 공장을 지난 5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리튬 자체 공급량을 연간 3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 중 10%인 3만 톤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조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 아이오닉6
자동차에도 각종 재활용 소재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아이오닉6의 내외장 도색에는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를 녹여 추출한 검은색 도료를 사용했으며 카페트는 폐어망을 재활용한 원사로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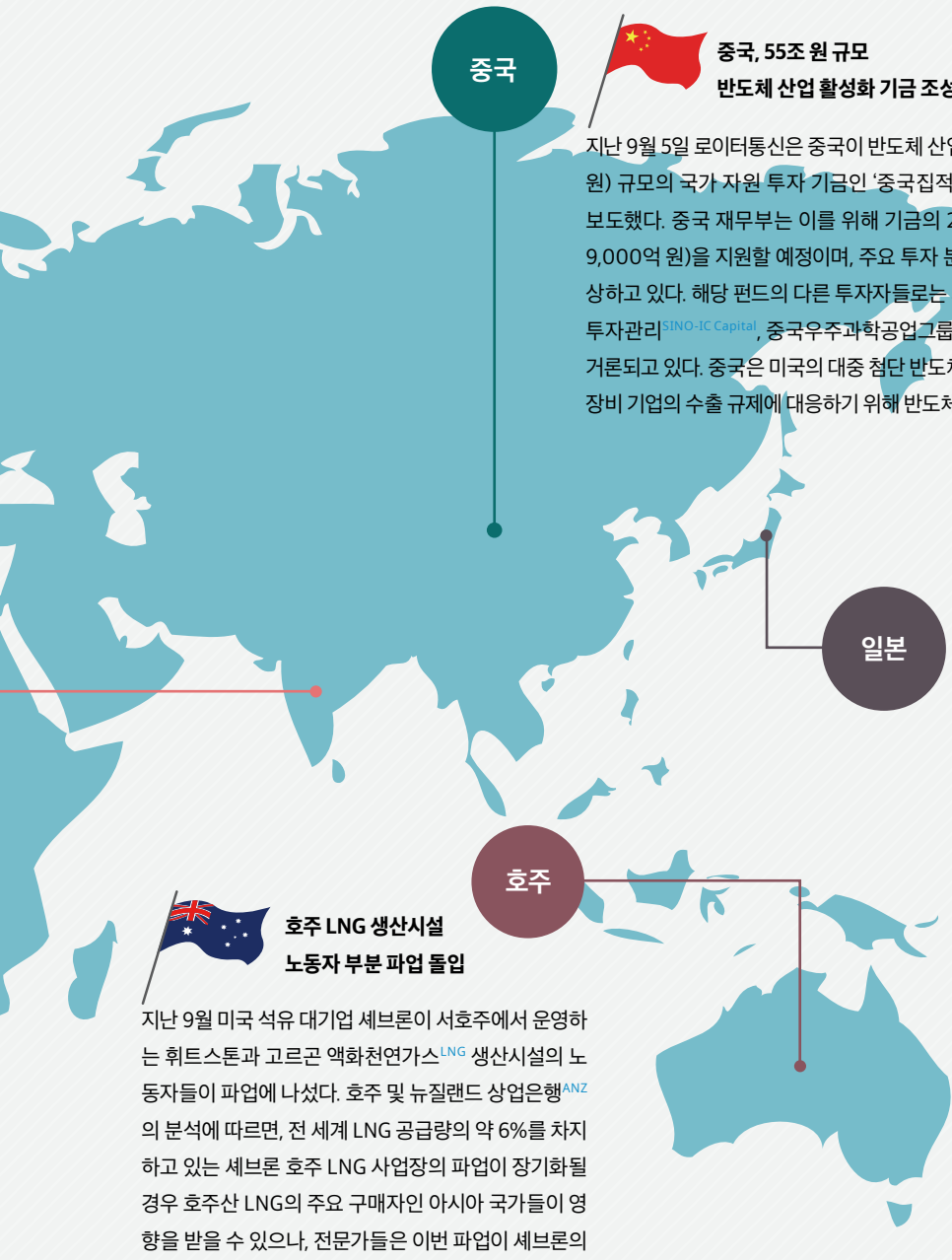
지도로 보는 글로벌 마켓

미국, 우려국에 대한 해외 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 에너지부DOE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120억 달러(약 15조9,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20억 달러 중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이며, 100억 달러(약 13조2,000억 원)는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 차량 제조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부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곳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개최

지난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첫째 날인 9일에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 합의 발표 및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 추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쟁 관련 표현은 상대적으로 줄고 세계 경제 전망과 기후변화 등 여러 다른 사안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아프리카연합AU의 G20 합류가 결정되었다.



중국, 55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금 조성

지난 9월 5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3,000억 위안(약 55조 원) 규모의 국가 자원 투자 기금인 '중국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 기금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위안(약 10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로는 과거 반도체 산업 기업을 관리했던 화신투자관리SINO-IC Capital, 중국우주과학공업그룹의 투자 자회사인 중국항공우주투자가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 장비 기업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2030년 EV 충전기 설치 목표 2배 확대 예정

지난 8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은 2030년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설치 목표를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경산성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약 3만 대의 EV 충전기를 2030년까지 총 30만 대(상업시설 27만 대·고속도로 3만 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EV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만 허용할 예정이다.

호주 LNG 생산시설 노동자 부분 파업 돌입

지난 9월 미국 석유 대기업 셰브론이 서호주에서 운영하는 휘트스톤과 고르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호주 및 뉴질랜드 상업은행ANZ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셰브론 호주 LNG 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호주산 LNG의 주요 구매자인 아시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셰브론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외 악재 속 디리스킹 속도 내는 중국 진출 기업들

최근 중국 거시경제의 둔화가 심상치 않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 성장률(4.5%)보다는 높은 6.3%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계속 하회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
중국 칭화대에서 금융학 박사를 전공한 후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경제가 성장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피크차이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고민도 적지 않다. 한·중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에 무역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상호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국의 많은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미·중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대변동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강화되는 중국 내 규제 환경 속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수는 점차 감소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고민

중국 현지 시장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2022년)'에서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한국 제조 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진출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동기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66.7%), 생산원가 절감(57.3%), 중국 내 원부자재 조달 활용(26.7%)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중국 진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변화에서 '꾸준한 상승세'라고 대답한 기업은 14.7%에 불과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등락'이 36%, '현상 유지'가 29.3%, '꾸준한 하락세'라고 대답한 기업이 20%를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실적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복이 상당하며, 현지 기업과의 경쟁 심화, 생산 비용의 증가, 중국 내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 실적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다변화된 대중국 전략

그렇다면 중국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 이는 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된 '디리스킹' 전략에서 일부 설명된다. 6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디리스킹'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을 막으려는 정책이며, 중국을 봉쇄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전달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시장 기지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첨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첨단 기술, 첨단 반도체에서는 탈중국 정책을 쓰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필요와 중요성에 따라 리스크 관리, 협력 확대 등 다변화된 대중국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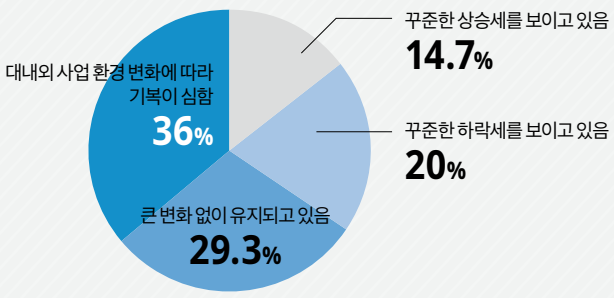
유럽 기업들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약바이오, 화학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 생산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해 기술 공동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완전한 탈중국이 아니라 중국 내에 구축된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이나China+1' 혹은 '차이나+N'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경쟁, 규제 강화, 생산 비용 증가와 더불어 미·중 갈등, 공급망 블록화, 글로벌 경제의 높은 변동성 등이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한국 기업들의 특징과 비교우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대중국 진출 전략을 탈중국, 협력 강화, 경쟁력 우위 확보, 다변화 등으로 다양하고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범위 및 규제와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확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 역시 중국 진출 기업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특징과 경쟁우위에 맞는 다변화된 정책 지원 방안으로 기업의 디리스킹 전략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 현상백 외(2022년),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KIEP 보고서, p.202~203

** 현상백 외(2022년),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KIEP 보고서, p.220~228

중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 업체 중국 지사의 경영 실적 변화



주 2022. 9. 15~11. 4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국내 제조 업체 7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KIEP,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년

기술 경쟁력은 높이고 R&D 리스크는 줄이고
글로벌 기술 도입 지원사업(X&D)

시장과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대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X&D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에 근거해 2001년 설립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170여 개 투자기관을 회원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투자 연계 및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 기술 도입 지원사업(X&D)'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M&A, 지분투자, 합작법인JV 설립, 지식재산권IP 인수 등으로 해외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파트너와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3가지다. △해외 타깃 기업 발굴 및 매칭 △해외 기술 도입 성사 지원 △해외 기술 도입 인증서 발급이다. 우선,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기업 M&A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KITIA 글로벌 M&A 자문기관의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정보로 특허 보유 현황, 지배구조, 투자 현황 등이다. 둘째로 해외 기술 도입을 위해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법률·회계 실사,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글로벌 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X&D)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해외 기술 도입 인증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매해 30개사 내외로 선정하고 있다. △추진 역량 및 지원 타당성(50점) △목표 설정 및 추진 계획(30점) △기대 효과 및 파급 효과(20점)를 고려해 선발한다.

KITIA 글로벌 기술도입 지원사업(X&D)

모집 기간
4~12월(올해 예산 소진 시 내년 4월 접수)

접수 방법
이메일(tech@kitia.or.kr) 접수

문의
KITIA 글로벌공급망실 공급망전략팀
(02-6000-7961·7966)

01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궁금합니다.

원자현미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 파크시스템스는 지난해 본 지원사업을 통해 타원계측기술[ISE], 진동제어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아큐리온[Accurion]을 M&A했습니다. 이후 파크시스템스는 세계 유일의 ISE 부품을 상용화한 아큐리온에서 핵심 부품을 자체 수급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강화했고,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도 해소했습니다. 또한 아큐리온 역시 유럽에 치중되었던 영업망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반도체 시장인 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02 M&A를 진행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많이 있나요?

이제까지 본 사업을 통해 성사된 M&A 74건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73%(54건)에 달합니다. M&A는 더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계약 규모도 소규모인 10억여 원부터 수백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오히려 M&A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까지 이루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M&A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KITIA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3 M&A 외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사업에서 M&A는 광의의 M&A를 의미합니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전통적 방식의 M&A부터 소수 지분 투자, 해외 기업과 JV 설립, 특허권의 양수도 및 전용실시권 계약까지, KITIA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통해 원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도입[X&D] 지원사업 돋보기

KITIA X&D 지원사업 절차

1. 신청	이메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3. 지원	• 해외 타깃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해외 기술 도입 성사 지원
	• 해외 기술 도입 인증서 발급(정부 과제 참여 자격 부여)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넷플릭스 리드 헤이스팅스

'창조적 파괴'란 기술 혁신으로 낡은 것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기존 DVD 시장의 대전환을 선도했으며 '유통과 제작은 별개'라던 고정관념을 깨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보란 듯 성공시켰다. 넷플릭스의 성공과 그들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알아보자.

강준형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
경제 분야 출판사를 운영하며, 관련 강의, 집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딱 이만큼의 경제학>,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시리즈> 등을 출간했다.

넷플릭스를 설립하기까지

리드 헤이스팅스는 대학에서 수학을,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던 그는 1991년 퓨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매출액이 크게 늘고 직원 수 또한 많아지는 등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일에 서툴렀던 그는 점차 경영에 부담을 느끼면서 심지어 이사회에 자신을 해고해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 다행히 이사회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되었으나 이 시기의 경험을 교훈 삼아 훗날 넷플릭스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설계한다.

헤이스팅스가 퓨어 소프트웨어를 매각한 이후 다음 사업 아이템을 물색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비디오 대여 사업이었다. 당시만 해도 비디오는 엄연한 실물이었기에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대여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여기에 헤이스팅스는 대여가 아닌,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 직장 동료인 마크 랜돌프가 가세하며 1997년, 넷플릭스의 시작을 알렸다.

대여에서 구독으로, 우편에서 스트리밍으로

헤이스팅스는 비디오 대여와 감상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다. 넷플릭스라는 사명이 괜히 '인터넷Net'+'영화Flicks'인 게 아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예상만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넷플릭스 또한 초기에는 DVD 대여와 판매를 병행했다. 넷플릭스의 핵심 모델인 구독 서비스는 1999년에야 선보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나 낮은 수익성이 발목을 잡았다. 요금 대비 콘텐츠 회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2000년 닷컴 버블의 여파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그는 결국 경쟁사이자 업계 공룡인

블록버스터Blockbuster에 매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단박에 거부당했다. 매장 수만 9,000여 개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그저 그런 경쟁사 중 하나일 뿐이었다(이 사건은 야후의 구글 인수 거부와 더불어 IT 업계 최대 실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에 독자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그는 2002년 넷플릭스를 나스닥에 기업공개IPO해 자금을 모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갔다.

2007년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트리밍은 DVD 재고 보유와 배송 시간 단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영화 시장 전체로 놓고 볼 때 넷플릭스의 지위는 유통사에 불과했다. 헤이스팅스는 벽을 허물기로 결심했다. 2012년 처음 제작한 오리지널 시리즈 <릴리해머>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듬해 제작한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덕분이다.

'규칙없음' 독특한 조직 문화

넷플릭스는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첫째, 넷플릭스는 피라미드가 아닌 나무를 닮았다. 피라미드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최고경영자CEO가 있지만 나무에서는 뿌리에 위치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직원들을 지탱해준다는 뜻이다. 줄기에 해당하는 관리자는 방향을 설정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회사를 키우는 건 직원들이다. 그만큼 확실한 권한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단, 성과가 낮은 이들은 가차 없이 내보낸다.

둘째, 보너스 대신 연봉을 높여준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열심히 한다." 아마 대부분의 CEO는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보너스는 효과적인 성과 보상 수단이긴 하나 개별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보다 자신의 보상을 중시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는 조직 문화다. 넷플릭스를 다룬 책 <규칙 없음>(2020년)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누구도 임금에게 벌거벗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꼬마아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진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벽은 높아진다. CEO부터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직원들도 점차 회사 업무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임할 것이다.

2023년 8월 OTT MAU 순위

1위_ **넷플릭스** 1,223만 명

2위_ **쿠팡플레이** 563만 명

3위_ **티빙** 540만 명

4위_ **웨이브** 439만 명

5위_ **디즈니플러스** 269만 명

주 OTT: 온라인동영상서비스, MAU: 월간활성이용자수
자료 모바일인덱스

> 다른 어느 것보다도 넷플릭스를 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
> 리드 헤이스팅스

Writer 남지연 *Photo* 이소연

마포 11기

㈜남도마켓

양승우 대표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도마켓은 도소매 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대문 도매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Questions

01. 남도마켓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남도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03. 해당 시장의 규모와 시장 내 남도마켓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04.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 달라.

유통 구조의 혁신과
정보기술IT의 결합을 통해
도소매 업체의 니즈를 해결하며
글로벌 도소매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Answers

01. 남도마켓은 남대문 도매 업체에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소매 업체에는 편리한 사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 플랫폼이다. 남도마켓이라는 이름도 '남대문'과 '도매'를 조합해 만들었다. 남도마켓은 전국 수십만 소매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 있는 해외 사용자와 한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입의 간편성과 빠른 배송으로 2020년 설립 이후 남대문상인회와 협력하며 전문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02. 도매 업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전문 디자이너가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해 상품 등록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매 업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여러 업체의 상품을 묶음배송으로 한번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ND픽업배송 서비스, 도매 업체 상품을 남도마켓이 포장·검수·배송까지 진행하는 ND풀필먼트 서비스, 도매와 소매 고객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일촌관리' 서비스, 해외 고객을 위한 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03. 남도마켓은 남대문 시장 공식 파트너 플랫폼으로, 남대문 시장에는 1만 3,000여 개의 도매상이 있고 그중 30%가 남도마켓을 사용 중이다. 또한 남도마켓은 초기부터 글로벌 도매 플랫폼을 목표로 두었으며 실제로 매달 글로벌 실적이 전월 대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해외 10여 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04. 우리는 남도마켓을 알리바바와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매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큰 경쟁사가 많지만 한국에서 알리바바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고 싶다. 현재 남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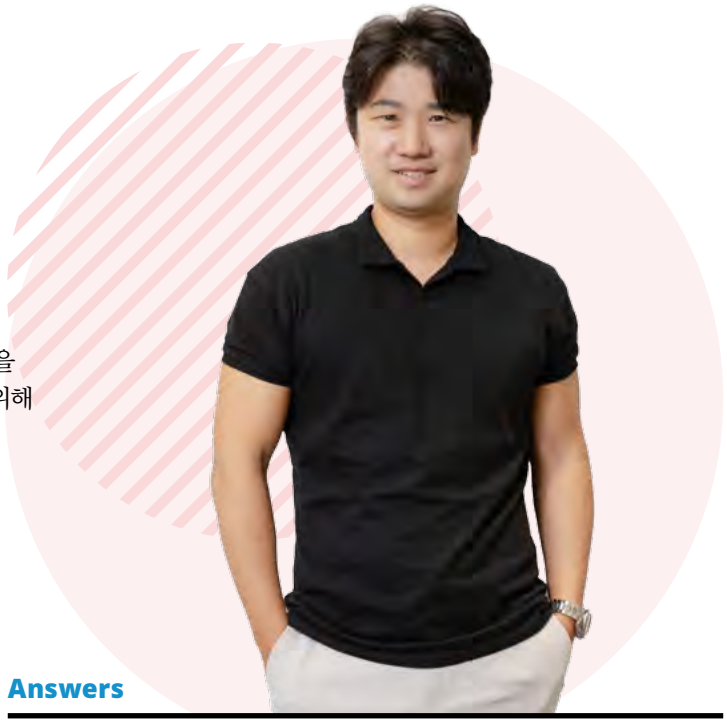
구로 10기

㈜블루웨일컴퍼니

오상혁 대표

활용 가치가 없다 여겼던 공간의 재탄생

블루웨일컴퍼니는 확보된 5,000여 개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물류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절차를 투입해야 했던 소비자에게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Questions

01. 블루웨일컴퍼니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블루웨일컴퍼니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03. 블루웨일컴퍼니만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4.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오프라인 공간을 확보하고
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swers

01. 블루웨일컴퍼니는 공간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휴공간 기반의 오프라인 거점을 디지털로 전환해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상점, 빌딩 등 건물 내외부에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대로 쓰이지 않던 공간을 물류 거점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공간 제공자와 필요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2. 현재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물품 보관 서비스 '럭스테이Lugstay'와 소비자 맞춤형 공간 제공 서비스 '유후UHOO'가 있다. 럭스테이는 여행 또는 일상생활 중 물품 보관이 필요한 개인이 주요 타깃층이며, 현재는 스마트 로커 연동, 행사 물품 보관 서비스 등 그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유후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간, 형태, 크기의 공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순하게 공간을 매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03. 우리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많은 유휴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공간의 데이터도 함께 확보해 왔다. 현재는 유휴공간 데이터들과 다른 데이터들을 결합·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유휴공간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04. 블루웨일컴퍼니는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유휴공간 정보를 고객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한 유휴공간에 필요한 설비 및 장치 등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고객에게 결제, 배송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보한 공간 데이터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 9기

원더무브㈜

김태원 대표

클라우드 비용 절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다

원더무브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클라우드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uestions

01. 원더무브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원더무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03. 시장 내 원더무브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04.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사회와 환경을 변화시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IT의 가치를 전하겠습니다.

Answers

01. 원더무브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분사 스타트업으로, 클라우드와 모니터링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SaaS 솔루션 'S-Kuber'를 선보이고 있다.

02. 클라우드는 크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기업 내부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아마존웹서비스AWS·구글·애저Azure 등)로 구분된다. 우리가 개발한 솔루션 'S-Kuber'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SaaS 서비스다. 클라우드 관리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과 도구를 통합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03. 원더무브는 이미 글로벌 대기업과의 개념증명Proof of Concept·PoC을 성공시키며 S-Kuber 서비스의 효율성을 빠르게 인식시켰고, 클라우드 SaaS 솔루션의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기업과의 PoC를 시작으로 아시아, 북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원더무브의 SaaS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04.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S-Kuber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 경험UX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전 4기

㈜뷰전

윤희영 대표

세상 모든 창호가 스마트 윈도가 될 때까지

뷰전은 기존 창호에 스마트 필름을 부착해 스마트 윈도화할 수 있는 PDLC[Polymer Dispersed Liquid Crystal] 전문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PDLC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Questions

01. 뷰전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뷰전만의 차별화된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3. 해당 시장의 규모와 시장 내 뷰전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04.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 달라.

스마트 윈도의 대중화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창호가
스마트 윈도가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nswers

01. 뷰전은 스마트 필름 전문 기업으로, 기존 창호에 뷰전의 스마트 필름을 부착하면 창호를 스마트 윈도화할 수 있다. 뷰전의 스마트 필름은 높은 열차단율을 보유하고 있어 창호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열을 차단할 수 있고, 불투명-투명 상태 변환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다양한 창호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02. 뷰전의 스마트 필름은 타사 대비 뛰어난 투명도와 넓은 폭, 높은 열차단율을 자랑한다. 또한 메모리 기능이 들어간 신제품 '컬러[Color] 리버스 모드 PDLC'는 타사 제품 대비 전력 소모가 없는 점과 다양한 컬러 구현이 가능한 점, 저렴한 가격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3. 글로벌 스마트 윈도 시장은 연평균 약 17%가량 성장하고 있는 고도성장 시장이고, 2024년까지 약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 전망된다. 현재 뷰전은 해당 시장에서 독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데 앞장서는 업체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특히 리조트 및 고급 인테리어 시장에서 차근차근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유럽의 경우 향후 3년 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04. 뷰전은 비록 창업한 지 1년 반 정도 된 극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추후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PDLC 스마트 윈도 기술 및 제품의 대중화다. 향후 스마트 윈도 필름의 가격 혁신을 이루어내고 설치의 간소화를 통해 모든 가정집, 사무실, 공공기관에서 우리의 제품이 널리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HBM, D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다

인공지능AI 서버는 무엇이고,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무엇이며, SK하이닉스는 왜 수혜를 받을까?

2023년 5월 중순쯤 SK하이닉스 주가는 우려되는 시황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기 시작했다. 상승세가 마무리되는 6월 중순까지 주가는 30% 이상 상승했다. D램RAM의 전방 산업인 PC, 모바일, 서버 등의 연간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가 움직임이었다.

2023년 5월 중순에 있었던 단 하나의 이벤트는 엔비디아NVIDIA의 실적 발표다. 엔비디아는 AI 서버 핵심 부품인 GPU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날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액이 1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관련 대표 수혜주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챗GPT, 세상의 주목을 받다

AI 서버는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알파고Alpha Go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다. 알파고로 관심을 받았으나 그때 잠깐이었고 계속 연구는 되고 있었지만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다. 그러다 2022년 말에 챗GPTChatGPT가 등장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1억 명 달성에 걸린 시간은 2개월로, 30개월의 인스타그램, 9개월의 틱톡을 제친 기록이다.

과거 AI와 달라진 점이 생성형Generative이라는 개념이고 이와 관련된 구글의 플랫폼이 트랜스포머Transformer다. GPT는 이전부터 있었고 개발을 거듭해서 GPT3까지

개발되었으나 결과물은 신통치 않았다. GPT3.5를 이용한 챗GPT를 통해 비로소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이전 AI와는 달리 생성형 AI에서는 병렬 연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반도체가 GPU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사용한 서버에 장착한 GPU가 엔비디아의 A100이고, GPU 개당 80기가바이트GB의 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HBM라는 특수 D램이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HBM

GPU의 역사도 챗GPT보다 긴데, 이전 GPU를 지원하는 D램은 그래픽 D램이었다. 역시 병렬 연산에 도움을 주는 구조다. 하지만 점차 처리하는 병렬 데이터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개발된 제품이 HBM이다.

HBM 생산은 D램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 최고 사양인 HBM3 생산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최근 삼성전자 역시 HBM3 시장에 진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양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HBM3는 엔비디아 GPU 최고 사양인 H100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이렇기 때문에 HBM3를 유일하게 양산 중인 SK하이닉스에 관심이 많고, 2024년에 출시 예정인 GH200을 지원하는 HBM3e도 SK하이닉스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HBM의 앞길을 가로막는 변수들

확실히 HBM은 D램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만하다. 다만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AI 업체들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존 서버 대비 AI 서버 구축 비용이 너무 비싸다.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1대의 서버에 GPU를 8개 넣고 있는 게 일반적 사양인 점을 고려하면 AI 서버 구축 비용은 40만 달러를 상회한다. 이에 비해 일반 서버는 1만 달러 수준이라 시장 잠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 서버를 구축하면 일반 서버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D램 시장의 성장 관점에서는 확실한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일반 D램과는 생산라인이 달라서 별도의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그리고 현재 AI 서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40주 정도인데 GPU 생산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키징을 전담하는 TSMC의 생산능력이 부족해서인데, 2024년까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구축 시간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램 시장 전체가 좋아지려면 전방 산업의 회복이 보다 더 중요하다. PC, 모바일, 서버 시장 개선이 동반되어야 업황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I 서버만으로 방향을 돌려놓을 수는 있지만 속도나 규모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위원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정보기술IT·반도체·디스플레이 섹터를 맡고 있다.

Writer 이성미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불꽃을 지키는 기업
유신단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조선 산업의 꽃'이자 희망이라 한다면, 유신단열㈜은 꽃을 피우고 지키는 기업이다. 유신단열은 1980년 설립해 국내 굴지 기업들이 생산하는 선박에 조선기자재를 공급해 왔다. 1990년대부터는 LNG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조선 분야 선두 기업들에 보온단열재를 공급했다.

IBK기업은행과 처음 인연을 맺은 때도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신규 공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을 찾은 유신단열은 그 인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IBK기업은행과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김 행장이 회사를 찾았을 때 유신단열을 "오랜 친구 같은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옥규 유신단열 대표는 회사가 지금까지 업계 최고 자리를 지켜 온 비결은 바로 '신뢰'라고 말한다. 설립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 몰두하며 고객사와 신뢰를 쌓은 덕분에 흔들림 없이 회사를 성장·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대표는 "IBK기업은행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믿음직한 친구'로 자리해주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유신단열에 방문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유신단열은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제작하는 LNG 운반선에 보온단열재를 공급하고 있다.

유신단열㈜은 1980년 창립해 선박용 보온단열재 분야를 이끌어 온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작하는 LNG 운반선에 보온단열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유신단열의 보온단열재 공급 비율은 국내 공급량의 80%, 일본의 100%, 중국의 70%에 달한다. 유신단열이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비결은 남보다 빠르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연구·개발R&D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데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보온단열재 분야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유신단열은 자발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보온단열 기술을 선박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을 취득해, 국내 대기업의 LNG 운반선 제작에 참여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지난 8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울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 19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했다. 대화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김 행장은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수출 기업 지원, 기술력 우수 기업 발굴·육성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의 정밀화학제품 제조 기업을 향해 날아가는 유니콘

㈜씨엠원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정밀화학제품 제조 기업 ㈜씨엠원. '씨엠원CMWON'이라는 이름에는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화학Chemical제품을 생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장종원 씨엠원 대표의 바람이 담겨 있다. 그 바람대로 씨엠원은 2018년 법인 설립 당시 6명이던 직원이 현재 39명으로, 매출액은 2020년 46억 원에서 2021년 141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실험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공장 없이 외주 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것 때문에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장 대표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올해 3월 공장을 준공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자금 규모가 커서 다른 은행에서는 투자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IBK기업은행에서는 회사 현황과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해주었죠. 두 팔 걷고 나서서 보증 및 정책금융과 연결해주셨고요. IBK기업은행에 대한 감사함은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앞으로도 업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IBK기업은행과 함께 이뤄 나갈 계획이다.

㈜씨엠원은 정밀화학제품 소재 전문 제조 기업이다. 씨엠원이 생산한 반도체 소재는 웨이퍼Wafer 위에 회로를 찍어내는 포토Photo 공정에서 사용되며, OLED 디스플레이 소재는 휴대전화와 대형 TV 패널Panel 생산에 투입된다.

국가전략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씨엠원은 회사 출범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아이템과 공정 연구·개발에 앞장서 왔다. 덕분에 그 저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기업, IBK기업은행 패밀리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에는 아기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430억 원 평가)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더불어 씨엠원은 앞으로 수년 내 기업 가치를 1,0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예비 유니콘 기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씨엠원에 방문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씨엠원은 정밀화학제품 소재 전문 제조 기업으로, 반도체 및 OLED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 Policy+Broadcast의 합성어로 정책을 소개·건의하고 중소기업 현장과 소통하는 코너입니다.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국내외 경제는 물가 인상 압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국경 없이 경쟁하는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혁신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벤처·스타트업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을 마련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단순 보조·출연금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로 확장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투자, 융자 등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로 한정되었던 지원을 해외로 확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국한되었던 정책 대상을 내국인이 창업한 해외 현지법인, 국내 창업한 외국인 등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창업지원법령 개정 등 후속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규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미국, 중국 등 세계 창업 강국들은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창업·벤처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국, 네덜란드 등은 외국인 창업자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세밀하게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비금융 생태계 조성의 강화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해외 거점 확대를 통해 금융 지원 외 비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륙별로 스타트업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중동,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창업 강국에 'K-스타트업 센터'를 추가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풀Pool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 스타트업이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인 'K-스타버스'를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펀드 규모 확대를 통한 집중 투자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투자다. 안정적 벤처 투자를 위해 2028년까지 8조 원 이상 펀드를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이상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 성공 벤처기업, 대기업, 연기금,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출자하는 형식을 통해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 3대 핵심 투자 분야로 구분, 자펀드 조성도 계획 중이다. 벤처펀드에 대한 금융지주 그룹의 적극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출자한도 상향 및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 신설 등 제도 개선 역시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조성된 펀드는 혁신산업펀드 및 성장지원펀드로 구분되어 신성장 4.0, 초격차,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 대상을 벤처·스타트업으로 타기팅하고 국내 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범부처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로, 금융에서 비금융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공간까지 망라한 벤처·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마련되어 이번 대책이 목표로 하는 2027년까지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6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	계획
정책 대상	국내 지원에 한정	해외에서 창업까지 포함
지원 방식	보조·출연금	투자, 융자 등 융·복합
지원 주체	정부의 하향식 주도	민관 협업에 의한 수평적 추진
지역 정책	지역 산업과 무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창업 기업 육성
정책 공간	물리적 공간	가상공간까지 확대
개방성	개별 기업에 폐쇄적·독립적 지원	대기업 협업, 클러스터 등 개방형 혁신

자료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23.8.30) 내용 발췌

글로벌 창업자를 위한 각국의 프로그램

	주요 정책
영국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e **글로벌 기술 기업의 영국 유치** - GEP의 해외 스타트업 유치 전략가인 딜메이커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의 비자 승인,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 영국으로 1,000개 이상의 기업 이전, 1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1.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
UAE	**아부다비 국영 액셀러레이터 허브**Hub **71** • 인센티브: 최대 1년간 현지 거주지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벤처캐피털VC 기업 파트너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 • 벤처랩: 자금(약 5억 원), 업계 전문가 등의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 • 연결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
네덜란드	**네덜란드 거주 허가**Dutch Residence Permit**: 우수 인재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트랙 운영** • (최초 1년) 창업비자 → (추가 2년) 자영업비자 → (5년 경과 시) 영주권 연계 • 세제: 고급 인력 인정받을 시 체류 기간 5년간 세금 30% 이상 감면 • 멘토링: 비자에 대해 전담 멘토 지원 (체류 허가 건수): 2020년 1.38만 명 → 2022년 3.08만 명(2년간+123%)
에스토니아	**전자거주권**E-residency • 외국인이 물리적 이동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거주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주로 창업가, 디지털 노마드가 발급받고, 발급자의 90%가 청년 • 2023년 현재 거주증 10만 명, 사업체 2.5만 개 등 성공적 안착 ※ 에스토니아 정부 입장에서 △추가 세수 확보 △투자 고용 창출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첨단 국가로의 이미지 개선 등 효과 발생

자료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23.8.30) 내용 발췌

혁신산업펀드 및 성장지원펀드 투자 분야

분야		투자 대상 분야
혁신산업	신성장 4.0	• (신기술) 미래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과학기술, 미래 의료, 에너지 신기술 • (신일상)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초격차	•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 자동차, 원전
	미래 유망 산업	• 바이오헬스, 나노 소재, 수소 생태계,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미디어·콘텐츠, 해양수산·국토교통·농식품 신산업, 항공우주, 탄소 소재, 방산, 양자
성장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 단계 중소·중견기업
		• 투자 전 기업 가치 500억 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거래가액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세법에서는 시가평가의 기준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자녀에게 기업의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대표자의 갑작스러운 유고, 회사 매각, 청산,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명의신탁주식 회수 등의 거래 시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한다. 세금은 비상장주식의 현재 시가로 과세되는데, 이때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기업의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상속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한 매매·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단,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① 원칙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당 평가액=
(주당 순손익가치×3+주당 순자산가치×2)÷5

가. 순손익가치의 평가

주당 순손익가치=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10%)

※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1)]÷6

나. 순자산가치의 평가

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자산총계-부채총계+영업권평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

※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이 아니면 평가기준일에 가결산을 반드시 수행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초로 자산, 부채를 평가한다.

② 예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당 평가액=
(주당 순손익가치×2+주당 순자산가치×3)÷5

③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나. 사업 개시 전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마.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④ 하한

가중평균가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할증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산화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조작하거나 순자산가치 조정을 통한 주가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시켰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현재의 주식 가치를 파악하고 주식의 이동 시 적정 거래가액 산정 및 세금 절세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 차이

구분	상증세법	소득세법
평가 방법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한 가액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한 가액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한 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평가기준일 직전 1개 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한 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로 상증세법에 의해 시가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발행 주식 수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 발행 주식 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망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 향후 산재 사망 발생 시 취해야 할 관련 조치를 살펴본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외국계 기업의 노무 인사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여 년간의 노무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노동 사례 실무서적을 발간해 왔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유가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논의를 해야만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사고 수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산재 사망 사고의 사례와 조치

A사는 수원 비행장 내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다. 2021년 9월 오전,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야외용 에어컨을 옮기던 도중 지게차에 실린 에어컨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현장에 함께 있던 유도자(재해자)를 덮쳤다. 재해자는 중상을 입고 급히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회사는 신속히 112로 전화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사고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먼저, 회사는 산재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로 간주되는 만큼 즉시 노동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현장소장이 유족과 장례 절차에 대해 협의함과 동시에 인사팀에서는 회사 차원의 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 산재 사망 사건의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한 사건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이때 사망 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함은 물론, 중대재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미신고나 24시간을 초과해 지체 신고 시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2 유가족 대응 자료 준비

유족은 장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회사에 요청한다. 첫째, 산재 처리 여부 확인. 둘째, 산재 이외 회사 책임에 대한 합의 여부 및 일정. 셋째, 병원비 및 장의비 선지급 등이다.

3 산재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정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해 놓아야 한다. 산재보상금은 병원비,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성되어 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하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범위는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 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실퇴직금(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적극적 손해로서 장의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보상과 형사상 책임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해 과실치사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앞선 사례에서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적 고소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준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 점검을 받게 되고, 여기서 산업안전 준수 사항에 대해 위반 여부가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철저히 준비하고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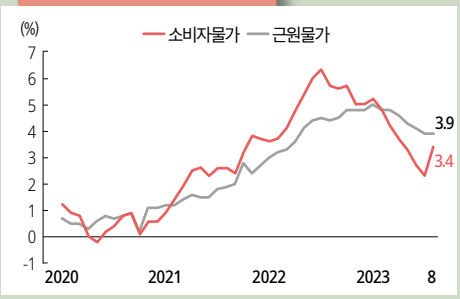
산재 처리 방법은?

산재보상 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고 있다. 유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본 산재 사망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 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 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상병 상태 확인→재해상황과 상병 상태 관계 확인→자문 의사 확인→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불승인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물가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대내외 요인들로 물가 상승 폭 재확대

하락 흐름을 이어 가던 물가는 8월 국제 유가 상승과 폭염, 호우 등 기상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반등하며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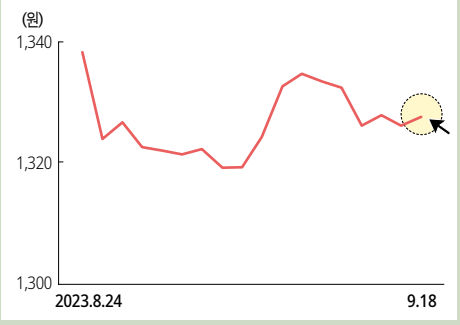
※ 품목별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 7→8월): (석유류) -25.7 → -11.0, (농산물) 0.3 → 5.4

산업 활동은 생산과 투자가 모두 부진

7월 산업 활동은 반도체(-2.3%)와 기계장비(-7.1%)가 감소하며 제조업 생산(-2.0%)이 감소했고, 기계류(-3.6%)와 운송장비(-22.4%) 투자가 줄며 설비투자(-8.9%)도 부진했다.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9월 원/달러 환율은 고환율 추세 속 불안한 모습
(2023.9.4일 1,319.2원→ 9.8일 1,334.7원→ 9.18일 1,327.6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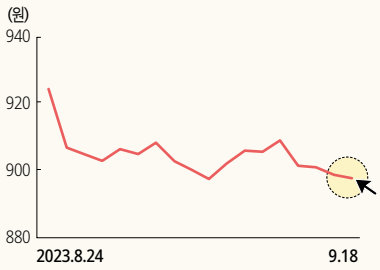
9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통화 약세 방어 움직임이 전해져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국제 유가 급등과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05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3년 3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305원으로 조사되었다. '1,290원 이상 1,32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BNP파리바(1,310원) 등을 포함해 5개사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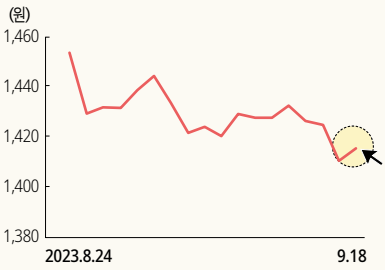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3.8.31 ~9.15

원/100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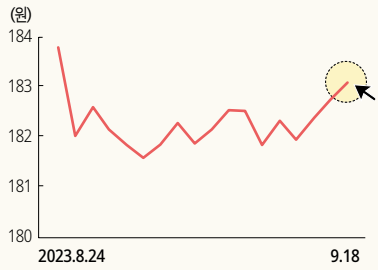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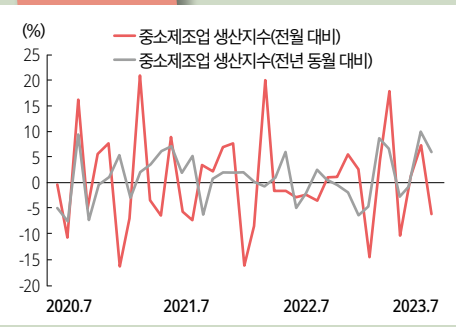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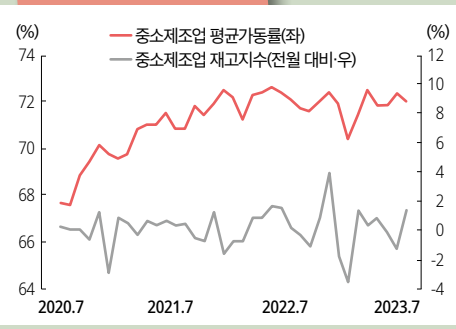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3년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6.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의복·모피(28.5%), 전기장비(2.8%), 의약품(3.0%)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6.2%), 의약품(6.1%), 기타운송장비(12.3%)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4.8%), 전자부품(-19.8%), 기계장비(-14.5%)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2023년 7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감소해 72.1%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전월과 동일한 68.5%, 중기업(50~299인)은 0.6%포인트 감소한 76.1%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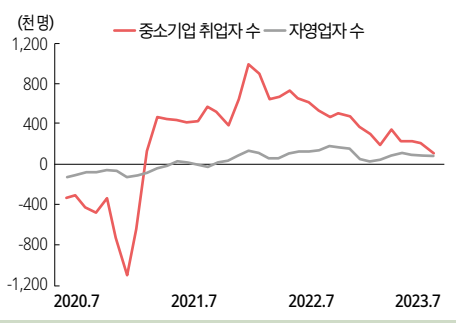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3년 7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4.0%), 자동차(4.8%), 전기장비(4.4%) 등에서 증가했으나, 통신·방송장비(-10.7%), 석유정제(-2.4%), 화학제품(-0.8%)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3년 7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7,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3만9,000명 증가,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7만8,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5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3년 7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만4,000명이 증가해 578만3,000명을 기록했다.

CEO의 즐겨찾기

최고경영자CEO의 지식, 품위, 즐거움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리스트.

APP

나만의 달리기 트레이너

런데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가져야 할 덕목에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체력'이다.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걷거나 달리고 산을 오르는 등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는 나만의 전문 트레이너가 함께 달리며 코칭해주는 듯한 풀 보이스 기능을 제공해 운동을 돕는다. 달리기에 대한 전문 정보와 다양한 맞춤형 달리기 플랜을 제공하고 훈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등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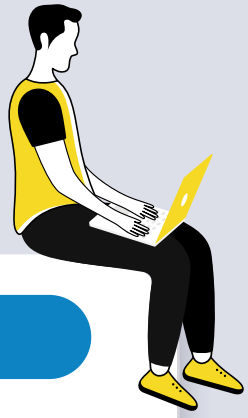
BOOK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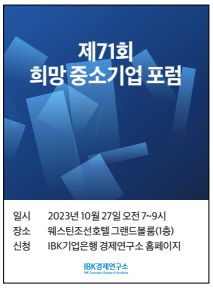
일론 머스크

월터 아이작슨 지음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 괴짜, 천재, 혁신가, 관종…. 일론 머스크를 향한 대중과 언론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도전하는 사업마다 놀라운 혁신으로 업계의 판도를 뒤집는 기업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감 능력 제로의 독재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도 존재한다. 머스크의 생애를 다룬 <일론 머스크>는 이 시대에 가장 혁신적이면서 논쟁적 인물인 머스크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실패로 인한 좌절 속에서도 자신이 상상한 모든 걸 결국 현실로 만들어낸 머스크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FORUM



중소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제71회 희망 중소기업 포럼

일시 2023년 10월 27일 오전 7~9시
주제 기업승계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신청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research.ibk.co.kr/

한국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사, IBK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희망 중소기업 포럼은 중소기업 CEO와 정계, 경제단체,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경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WEB

당신을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줄

EBS 비즈니스 리뷰

https://ebr.ebs.co.kr/

경영 전략, 혁신, 마케팅, 리더십에 대한 최고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EBS 비즈니스 리뷰EBR는 수준 높은 비주얼과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경제·경영 콘텐츠를 제공한다. EBS TV와 온라인을 통해 15분간 국내외 기업과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CEO는 물론 일반인들의 지적 경험을 높여주는 우수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로 구성된 EBR은 국내 최고의 스토리텔러들이 들려주는 경영 혁신 강의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의 성공과 도전, 혁신의 순간을 포착하고 이야기한다.

(2023.9월 현재)

IBK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자
IBK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가계안정

금융비용은
낮추고

자산형성

금융자산은
키우고

근로복지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중기근로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4416호(2023.09.20) 유효기간(2024.09.19)

· IBK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 상세 내용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r)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e-mail:ibkethics@ibk.co.kr)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독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경품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

- **응모 대상**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독자라면 누구나
- **응모 기간** 10월 4일(수)~11월 30일(목)
- **응모 방법** QR코드 스캔 후 양식에 맞게 응답 및 제출
- **당첨 안내** 당첨자 개별 통보
- **문의 사항**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편집실(02-360-4833)

설문조사 참여 QR코드

유의 사항

- 당첨자에게는 이벤트 응모 시 기입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쿠폰을 발송해 드립니다.
-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응모 기간 및 경품은 당사 또는 제작사 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동등한 경품 등으로 대체해 제공합니다.
-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본 이벤트의 응모 및 경품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동 목적 이행 완료 시까지 이용·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컨설팅

기 업 과 인 재 를 연 결 하 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876호(2023.08.24) 유효기간(2024.08.23)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